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목회장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English Mass	Sunday 12:30PM
	평일미사	화,목요일 오후 7:30 수,금,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예비자교리	매주 화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일 오전 11시 ~ 12시 15분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제 1독서] 사도 5,27-32.40-41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 2과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2독서]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음] 요한 21,1-19<또는 21,1-14>

성가	입당 136	봉헌 215	성체 155 168	파견 68
----	--------	--------	------------	-------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3주일(4월 10일)		부활 제4주일(4월 17일)		부활 제5주일(4월 24일)	
	8시 미사	교중 미사	8시 미사	교중 미사	8시 미사	교중 미사
미사해설	이정연 골롬바	2구역:장희숙 루시아	임승원 루카	3구역:이마리크레센시아	정애리 스틸라	4구역:김순희 글라라
제 1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2구역:최응일 시몬	김휘 안토니오	3구역:김도마스아퀴나스	이영국 바오로	4구역:허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정영희 글라라	2구역:최명희임마콜라파	정애리 스틸라	3구역:이혜경 레아	이정연 골롬바	4구역:양정화 쟈마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 주일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4/10(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4/10(일)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리디아(영화)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안임수	찬미성가대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가브리엘 신부님	익명
	연 서데레사(춘애)	가족		생 조바올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연 이요셉(건용)	이비비안나		생 김다윗(승우)영육간건강	김시몬(원덕)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황마르코(문환) 생신	김안젤라(영선)
	연 백아네스(효정)	조레지나		생 황마르코(문환) 생신	김엘리사벳
	연 김요셉(덕명)	자녀들		생 이크리스티나(인숙)	김엘리사벳
	연 도요셉/장마리아	부필로메나		생 아버님 영육간 건강	윤루시아
	연 김루갈다(종분)	임루카(승원) 가족		생 박이냐시오/최안젤라	김안토니오(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두 번씩이나 파견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과 충격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감과 그에 따른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요한 21, 3) 예수님의 갑작스런 죽음과 연이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혼란과 좌절, 그리고 의욕상실 속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지난 세 번의 배반은 아직도 그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남아있었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 하십니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 15)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처럼 성소의 위기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소명의식과 삶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가 오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요한 21, 5)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 21, 6)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고기를 잡지 못하

지 않았느냐? 왜 그토록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느냐?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바로 주님의 지시를 받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의 지시와 관련 없는 삶을 사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 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교부들에 따르면, 그 숫자보다는 제자들이 불확실과 좌절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주님의 지시에 따름),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교회의 선교사명과 포용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나미 153볼펜은 주님과 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신자였던 송삼석 회장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결국 MonAmi 153 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지시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지시와 관련이 없다면 허탕할 수밖에 없고, 관련이 있다면 그만큼 열매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상영 요셉 신부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 주일헌금과 참석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196	8	291
헌 금	\$701	\$1,626	\$4	\$2,331

< 교무금 > \$4,645

김영순(4) 김원덕(3-4) 임윤택(4) 김형준(3-4)
전문자(4) 한서연(3-6) 이영기(3-4) 채용분(4)
정태준(4) 김순이(4) 유혜선(4) 황문환(4) 이병열(4)
한제구(1-3) 조덕행(3-4) 강신호(3) 이은자(3-4)
황혜신(4) 박일신(4) 정진희(4) 김철우(1-4)
김광석(4) 이성재(3-4) 추혜성(1-4) 천종욱(4)
김영희(4-5)

< 성소후원금 > \$285

임윤택(4) 김형준(3-4) 채용분(4) 김순이(4)
조덕행(1-12) 이은자(3-4) 황혜신(4) 박일신(4)

< Bishop's Appeal > \$145

조덕행(1-12) 황혜신(4)

< 감사헌금 > 변귀태 \$100

< 부활초 > 김범식 \$200

- 평일미사 지향

날짜	연	지향	봉헌자
4/12(화)	연	이요셉(건용)	이비비안나
4/14(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이요셉(건용)	이비비안나
4/16(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백아네스(효정)	가족
	연	박막달레나/정베드로	전안드레아/데레사



◆ 부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 모임

* 요아킴/안나회

- 4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김승우 닷/황문환 마르코 형제님들의 자녀이신 김원덕 시몬/김영선 안젤라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 성모회 : 4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건강 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Redwood Regional Park 주차장 집합

◆ 본당신부와 사목위원/단체장/구역장 첫 만남

4월 1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본당신부 점심 제공

◆ 빈첸시오회에서 EB 노인 봉사회와 필리핀 카리타스 수녀회에 각각 \$1,000 씩 후원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원 모집

매달 첫 금요일 저녁 9시부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조배하실 수 있으며, 특히 힘들지만 그만큼 은총이 가득한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의 한 시간을 조배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구창희 미카엘 925-766-5476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707-696-7743

◆ 북가주 성서모임 탈출기 연수

일시 : 4월 15일(금) 저녁 6시부터 4월 17일(일)

장소 : 대빌 피정 센터

누가 : 탈출기 끝낸 본당 교우 12명

◆ 음악이 가득한 피정 <사랑과 위로>

일시 : 4월 30일(토) 저녁 7시 30분

장소 : 산호세 한인성당

입장료 : 어른 \$10, 학생 무료

예매 및 문의 : 408-904-9492 sjamabilis@gmail.com

◆ 북가주 제 22차 성령 대회

일시 : 5월 21일(토) 오전 8시 반부터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 한인 성당

주제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강사 : 정광해 시몬 신부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배경석 요셉 신부 (경기도 오산본당 주임)

* 라이드나 babysit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엠파트리샤 503-369-2945

◆ 서중부 남성 제 12 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3일 ~ 6월 26일(3박 4일)

장소 : Oakland Holy Redeemer Center

대상 : 각 성당의 견진 성사를 받은 모든 남성 신자

4월 구역반 모임

구역	반	시간	장소
1	오클랜드	4월23일(토)6시	최대연 다니엘 댁
	캐스트로밸리	4월23일(토)5시	Sushi Ave. & Grill
3	버클리/리치몬드	4월23일(토)5시	정일환프란치스코댁
4	월넛크릭	4월22일(금)6시반	이유지비비안나 댁

◆ 사순피정 강의 CD 신청

채홍락 시몬 신부의 사순피정 강의 CD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음버전(CD 2장, \$10)

- MP3 버전(CD 1장, \$5)

문의 : 교육부장 (707-696-7743)

◆ 컵청소 당번 안내

4월 10일(오늘) : 2 구역 헤이워드/캐스트로밸리반

4월 17일(다음주) : 3 구역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교우들은 사무실로 변경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 오늘 간식은 정애리 스틸라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건회관 회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후, 청소, 쓰레기 처리 등을 직접 해 주십시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쟼마(4/11) : 배쟁마, 원명숙, 김영순, 양정화, 김명순

* 유스티나(4/14) : 신점숙

* 지난 3월 말에 떠난 빈센트 부부가 남기고 간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 부활대축일 때 감사장을 받으러 앞에 나갔던 그 순간, 저희는 어떤 말로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진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장은 우리 마음 깊이, 영원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생에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한국학교 안내

- 4월 16일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